

시험장 안에서 적절하게 떨고 있는 너에게.

명심해라.

잠시 후 볼 시험에서 글씨가 잘 안 읽히거나,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정상이다. 혹은 중간중간 잡생각이 든다면 그것 역시 정상이다. 수능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다. 수능 국어 안에 있는 독해력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어휘력 같은 요소는 집중력이 별로 필요 없지만, 독해력 자체는 집중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 명심하자. 잡생각이 들거나, 글이 한 번에 안 읽히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상했던 일'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필자도 수능을 6번이나 봤지만 6번 다 미친 듯이 떨고,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글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원래 그렇지 뭐'라는 생각을 하고 놓친 문단을 '다시' 읽었고, 멘탈을 금방 회복해 국어 100을 여러 번 찍었다.

그러니 잠시 후 볼 시험에서 무언가 글이 튀겨 나온거나, 머리에 남지 않는 느낌이 들어도 침착하게 다시 읽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원래 그런 거다.

너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대로 문제를 풀어낼 것이다. 큰 걱정하지 마라.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떨림과 걱정 역시 좋은 점수를 얻는 데에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고, 그것 역시 좋은 점수를 얻는 요건이니까. 널 믿어라.

동양철학은 한자어를 살려 읽는 게 핵심이다.

팔호 안에 한자를 괜히 주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 읽으라는 거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자.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첫 문단을 의식적으로 더 분해해보자. 신채호는 투쟁을 강조한 사람이지만, 이 문단에서는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한다고 읽어냈어야 했다. 그리고 '투쟁과 연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즉 핵심은 '투쟁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 '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군?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 첫 문장이 3줄까지 가고, 정의라는 정보를 제시했다. 첫 문장을 한 번에 읽고 밑으로 내려가려 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이다. 시험장 안에서는 이 문장을 다시 읽거나, 끊어 읽어야 정상이다.

지문에서는 아와 비아는 상대성을 가진다고 하며, 아의 자성을 소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성'이 '나의 나됨'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당연한 거다. 스스로 자에 성질의 성을 썼으니, 한자 그대로 따지면 나의 성질인거다.

항성은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변성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 역시 한자를 따져보면 당연한 거다. 항성의 '항'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뜻일테고, 변성의 '변'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뜻이겠다. 이러한 변성이 있을테니 당연히 자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겠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 아는 소아와 대아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한자어 살려 읽어보자면 작을 소니 개인이고, 대아는 클 대니 국가적 차원이겠다.

상속성은 물려준다는 뜻이 담긴 어휘인데, 당연히 이것도 국가적 차원의 경우나 가능한거고 개인의 차원은 안되겠다. 소아와 대아의 어휘적 의미를 살리면 생각보다 당연한 내용이다.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 이거 역시 어휘적 의미를 살려 다시 읽어보면 예측 가능한 내용이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아에 대해 공부했으니 드디어 본론인 투쟁과 연대에 대해 알려준다고 한다. 글 구조가 보이냐?

1문단 : 아를 통해 '투쟁과 연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서론.

2,3문단 : 아에 대한 설명.

4,5문단 : 아를 통해 '투쟁과 연대'에 대해 설명.

이런 썬이다.

여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자. 신채호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아라고 소개한다. 근데 이거 굉장히 당연한 개념 아닐까? '제국주의'는 개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개념이니까, 당연히 소아가 아니라 대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거다.

동양주의는 일본을 중심으로 합치는 것이기에, 비아가 아가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당연히 비아니까,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라는 거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친일파 정도 되겠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속의 비아'라고 칭한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신채호는 일본에도 조선에 도움이 되는 '비아 속의 아'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개념을 명료화 함으로써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끼리의 '연대'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려 했다는 것이다. 1문단에서부터 이 개념이 이어진다. 이것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이고, 문제로 직결되는 개념이다.

시험장 안에서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못 읽어내도 괜찮다. 다시 잘 돌아와서 풀면 된다.

요즈음 수능은 일대일 대응으로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지문에서 살짝 헤메도 잘 돌아가서 풀면 괜찮다. 물론 이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다.

수능을 모의고사처럼 봐야 잘 본다는 말이 있다.

모의고사때 나오던 풀이 습관이 수능에 나오려면 모의고사처럼 봐야 한다는 것이겠다.

그러니 수능을 본다는 기분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친다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보자.